

## 전문가가 아니어도 좋다, 가다 보니 꿈을 향한 첫 걸음

이름: 황지선

근무기구 및 부서: UNWFP Regional Bureau Bangkok

직위: Voluntary Assistant- Evidence Value Chain(Data analysis, management and visualization)

지원경로: 소속 대학교 국제협력센터를 통한 지원

근무기간: 2020 년 10 월 ~ 2021 년 3 월 ( 5 개월)

### 1. 들어가며

유엔에서는 바로 일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요구한다. 이번 인턴십의 ToR(Terms of Reference)의 필수 자격과 경험 란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통계학/계량경제학/데이터과학에 있어서의 능통성, 최소 하나의 통계소프트웨어 패키지에 있어서의 능통성이 요구되고 있었다. 정치학과 외교학을 공부하고 기존 인턴 경험이 없었던 나의 입장에서는 ToR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들로 가득 찼다.

이러한 ToR을 보면, 학부생의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평소 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거치면서 전문성을 키울 걸, 뒤늦은 후회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이 글을 접하는 모두에게, 관심 가는 기회가 보인다면 주저 없이 도전해보라고 응원하고 싶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와 닿길 바라며 글을 써내려 간다.

### 2. 코로나 시국에 왜 국제기구인가?

인턴십에 지원하기 전에, 복잡한 ToR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점이 걱정스러웠다. 대학 입학 후부터 졸업 전에는 꼭 해보고 싶었던 국제기구 인턴십이 내가 지원했던 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국제기구 인턴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 해외 거주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전 인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일에 대한 만족스러운 성과를 과연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들었다. 여러모로 걱정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지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내가 이전부터 지켜왔던 가치관으로부터 비롯된다.

나는 나로 인해 세상이 더 나아졌으면 하는 가치관을 어렸을 때부터 가져왔다. 대학 입학 후 여러 경험을 하면서 세상을 바꾸기에는 내가 한없이 나약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작은 경험들이 모여 나의 비전에 언젠가는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식량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이고, 그렇기에 더 나은 지구를 만들기 위해 일을 하는 WFP에서의 인턴십 기회는 나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따라서 비대면 인턴십이지만, 지원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렇다면 학부생으로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었는가? 인턴십에 지원할 당시 나는 직무에 적합한 스펙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학교 프로그램으로 짧게 대만에서 공부하고 왔던 경험, 여러 동아리 경험, 그리고 대외활동을 하며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경험 외에는 커버레터에 쓸 만한 특별한 내용 또한 없었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고 느낀 점을 최대한 진솔하게 어필하게 되었으며, 특히 이번에 맡을 업무와 관련하여 양적 연구 방법론에 흥미를 가져 스스로 연구했었던 점을 위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 운 좋게 얻은 면접의 기회에서 나는 지금까지 여러 활동을 해오며 배웠던 점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 동시에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과 이번 기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은 부분에 대한 강조를 했다. 지원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서류를 우선 통과한다면 면접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선불리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보다 절대적인 능력이나 경험이 뛰어난 지원자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팀 내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팀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3. 화면 너머서의 일과 배움**

이번 인턴십으로 나는 WFP의 RBB(Regional Bureau Bangkok)에서 Evidence Value Chain(Data Analysis, Management and Visualization) 업무를 맡게 되었다. WFP는 내가 인턴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20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세계 최대 규모의 인도주의적 기구다. UN의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를 달성하기 위해 일을 하며 그 중에서 일을 하면서 SDG #2 Zero Hunger 그리고 SDG#17 Partnerships for the Goals를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WFP는 80개 이상의 국가에서 Zero Hunger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콕에 위치한 아시아의 지역사무소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

데시, 부탄, 캄보디아, 북한,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그리고 동티모르에 있는 총 14개 국가의 국가 사무소를 관할한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코로나 19로 인해 태국에 직접 가보지 못하여 개인적으로 태국에 대해 느낀 바는 전달할 수 없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시차는 우리나라와 2시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업무 시간을 조율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했으며, 개인 업무 외에 팀 회의나 머추얼 coffee chat 등을 통해 최대한 현장감을 느끼면서 일하기 위해 노력했다. 코로나가 심할 때는 재택근무만 했지만, WFP 서울사무소 소장님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일정 기간 동안은 실제로 서울사무소로 출근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턴십을 시작할 때 크게는 4가지 업무를 맡게 되었다. RB(Regional Bureau)의 역할 중 하나는 CO(Country Office)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입력하는 데 있어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되어 주된 업무는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로는, COMET “Data Entry” 부트캠프를 기획하게 되었다. ACR(Annual Country Report)을 연말에 작성하면서 데이터를 COMET(Country Office Tool for Managing Effectively)이라는 WFP의 온라인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원래 계획은 CO(Country Office) 직원들이 참여하는 부트캠프를 통해 데이터 입력 과정을 직접 감시하고 돕는 것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그 해에는 부트캠프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트캠프에서 진행될 프레젠테이션을 온라인에서 준비했으며, 지표마다 데이터 입력 방식이나 기준이 다른 경우에 그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다. 나는 부트캠프의 전반적인 진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 외에도 SDG 관련 지표에 대하여 국가 사무소별로 수집해야 하는 데이터와 방법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정리하고, 부트캠프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부트캠프가 끝난 이후에도 국가 사무소별로 1:1 서포트를 미팅을 통해 제공하기도 했다.

두 번째 주 업무는 Outcome 지표 엑셀 요약본 생성이었다. ACR를 작성하기 위한 지표 관련된 정보를 엑셀파일에 정리하는 업무다. 업무 내용은 다소 간단했지만, 지표별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 다 달랐고, 필수적인 지표가 많아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다루어야 했다. Indicator Compendium이라는 문서에 필수 지표들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문서가 다소 장황하며 이를 제

대로 파악하고 지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지표에 요구되는 데이터를 모으는 경우가 많아 통일시키는 과정이 복잡하다. 나는 엑셀에 outcome 지표 요약본을 작성하여 다소 장황하고 접근이 어려운 정보를 CO에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 자료는 ACR 작성 과정에서 CO들에게 공유되는 주요 문서 중 하나였다. CO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자주 반복되는 실수에 대해 Common Errors FAQs를 작성하고 비슷한 실수가 재발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 자료 또한 ACR 작성 과정에서 CO들에게 공유되었다.

인턴십의 비대면적인 특성 상 필드에 나가볼 기회가 많지 않았고, 그 대신 자료조사를 요구하는 업무를 주로 맡게 되었다. WFP Country Capacity Strengthening은 아직 발달이 미흡한 영역이므로, 이를 확장 시켜 나가기 위한 자료조사 그리고 지금 WFP가 하고 있는 Capacity Strengthening 트렌드 파악, narrative 드래프팅을 위한 기초작업 또한 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Output, Outcome, Cross-Cutting 지표들 관련 데이터 퀄리티 확인 업무도 맡게 되었다.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들도 당연히 많았다. 온라인 인턴(Remote Intern)이었던 만큼 걱정되는 부분이 처음에는 많았다. 특히 인턴십을 하는 이유는 전문적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개인 네트워크 구축 강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두 번째 목적을 이루지 못할까 걱정이 되기는 했다. 그러나 모든 팀원이 정말로 친절하게 맞이해주셔서 큰 걱정을 덜 수 있었다. 실력 있는 팀원들이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였으며, 주기적으로 체크인하여 업무량과 난이도를 적절하게 분배해서 주셨기 때문에 늘 배우면서 일을 할 수 있었다. 매 주 weekly what's up에서 업무 보고를 하였으며,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물론 처음에는 COMET이 생소했고, 엑셀을 자유자재로 다룰 실력이 안 되어 어려워하기도 했다. 또한, UN에서는 정말 많은 acronym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페이지에 꼭 찬 acronym list를 처음에 받고 충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다양한 업무를 맡으면서 자료조사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울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데이터가 세상의 이야기를 말해줄 수 있다는 점을 몸소 느끼게 되었다. 이는 내가 인턴십이 끝나고 데이터 분석에 더 집중해서 공부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 4. 인턴십을 마치면서 느낀 소감

모든 인턴십이 그렇지만, 비대면 인턴십인 만큼 특히 적극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다. 적극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질문을 많이 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먼저 Microsoft teams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들이 언젠가는 본인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또한 인턴십 하나가 다른 경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면 무조건 도전을 해보라고 권유하고 싶다. 나는 이 인턴십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R, SPSS, STATA 등 데이터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져 인턴십을 하지 않았다면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 같은 데이터분석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또한, UN과 사뭇 다른 성격의 국제기구는 어떠한 지에 대한 궁금증도 가지게 되어 OECD 인턴십에 지원하게 되었으며, 운 좋게 합격하여 WFP 인턴십이 끝나고 거의 바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 인턴십은 거의 일년동안 해오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도 WFP에서 일하면서 키워나갔던 실력이 없었으면 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 5. 끝맺으며

국제기구는 흔히들 들어가기 어려운 곳, 문이 좁은 곳이라고들 생각하곤 한다. 대부분의 인턴들은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기에, 아직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 힘든 학부생에게는 국제기구 인턴이라는 것이 어려운 도전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제기구는 생각보다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나는 학교 국제협력본부의 공지를 꾸준히 살펴보다가 인턴십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학교 외에도 공고가 올라오는 사이트를 자주 살펴보면 기회가 생각보다 많다. 외교부에서도 대한민국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많은 기회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를 자주 살펴보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다. 꿈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다양하다. 어쩌면, 나처럼 학부생인 경우에는 명확한 꿈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턴은 완성된 사람이 아닌, 아직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지원을 하면, 놀라운 결과가 잇따를 수 있다.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중요하다. “왜”에 대한 대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나는 WFP에 받을 들이게 되었고, 이 경험은 현재의 나를 만들게 되었다. 아직 고민하고 있다면, 도전의 가치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끝/

<사진첨부>



그림 1 버추얼 Farewell C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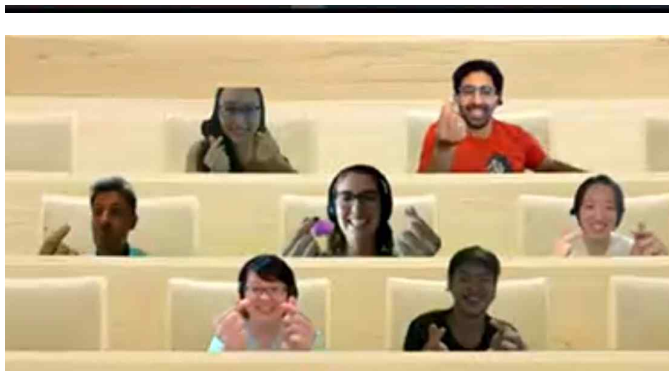


그림 2 버추얼 farewell party